



우리나라 펄프·製紙工業의 用語定立 問題

한국펄프·제지연구소 대표 曹 亨 均*

一本稿는 지난 4월 26일 한국펄프제지공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행한 특별강연을 정리한 것이다. 해방 후 4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 각 공업계의 용어가 오염일로를 걷고 있는 현실에서 독자제위에게 一考의 기회가 된다면 다행이라 생각하며, 비단 제지공업계뿐 아니라 일반 공업계의 공통적 문제인줄 알아 光復 40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다 같이 반성해보자는 뜻에서 기고하는 바이다.

머리 말

핑 잡는게 메라는 말이 있다. 돈버는게 장평이지 뭐 골치아프게 시끄럽게 구느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보면 우리 공업계의 말과 용어문제는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민족의 백년 아니 천년대계의 기초를 놓는 重大事이기 때문에 소홀히 방치해 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본인은 내년 86년 4월로 제지공업계에 투신한지 만 30년을 세이게 되었다. 그것은 전혀 우연한 일이었지만, 일단 이 공업계에 발을 들여 놓은 이상에는 그저 事物을 덩뎅히 보아넘기지만은 못했던 것 같다. 새로이 내 앞에 展開되는 제지현장이라는 어떤外界가 새롭고 낯선 것일수록 어찌면 그것은 충분히 吟味하고 씹어볼만한 興味津津한 것이었다.

그래서 투신한지 이듬해인 '57년부터 製紙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하게 됐는데 맨 처음에 쓴 것이 單行本의 번역으로서 “비이타와 페이퍼 머신”이라는 책이었다. 勿論 이것도 전혀 뜻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 당시 筆者가 籍을 두고 있던 國立工業研究所의 副所長格으로 계시던 故李範純博士님이 새로 나온 稀貴本하나를 求했느라 하시면서 번역 해 보라는 분부에서였다.

그 後, 어제 本講演 준비상 들추어보니 약 40편 가까운 各種 論文, 論說, 敎本, 報告書 등을 執筆한 것 같은데 이런 作業을 通해서 아다 自然히 工業現場에서의 言語現象問題를 남달리 생각하게 되고 문제삼아오게 된게 아닌가 싶다. 그리하여 業界로서는 처음으로 1960년에 用語問題를 다룬 論說로 “洋紙有感”이라는 글을 「製紙」誌에 발표하게 됐는데, '64년에 다시 “洋紙·韓紙·和紙”라는 글을 쓰게 되었다. 이 글을 쓰게 된 緣由는 아마 1961년 11월 상공부에

* 化工技術士(纖維素)

1) 韓國製紙工業聯合會發刊, 製紙 제28호 1960.
2) 同 上 製紙 제57호 1964.

표준국어 新設되고 그 事業의 一環으로 1963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KS 紙類專門委員會가 생겨 거기서 製紙分野의 一切 工業規格을 하나하나 審議 制定하게 됐는데, 지금와 생각해보니 당시에 委員長으로 계시던 李範純博士의 배려로 委員의 한 사람으로서 줄곧 일하게 된데서 나온 發言이 아니었나 추측된다.

펄프·製紙分野의 KS 제정은 그 후 2 審制가 確立되어, 上部機關인 工業標準審議會 化學第4部會(會長은 역시 故 李範純博士)에서 再審하여 最終確定하는 방식이 取해졌는데, 거기서도 微力하나마 本人이 最近까지 작은 奉仕를 하여 한바퀴 改定作業까지 마치게 되었다.

한편 民間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가?

이미 1956년에 製紙工業聯合會에서는 民族工業의 基礎를 세운다는 뜻에서 用語制定委員會를 구성하고 우선 아쉬운대로 紙類名稱등을 審議制定한바 있었는데 그 當時 기억에 남는 가장 두드러진 업적이 있었다면 당시까지 불려오던 模造紙라는 말 대신에 白上紙라는 用語를 만들어 일반 사회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업계내에 있어서는 훌륭하게 定着됐다는 점이다.

제 2차 사업으로는 1971년 1월 19일에 “펄프·종이·板紙 및 종이製品 分類”³⁾라는 것을 製紙工業聯合會와 펄프·종이 技術協會가 공동으로 작업하여 내놓았는데, 官界, 學界, 研究所, 現場의 4부작으로서 훨씬 더 廣範圍하고 충실한 內容을 담게 되었다. 이때 本人은 起草委員인 三人委員會의 한사람으로 일한 바 있는데, 이때의 特記事項으로는 그 當時까지 中芯紙라는 日語를 그대로 踏襲 使用하던 것을 “골芯紙”로, 그리고 펄프 表記法(後述)을 確立한 점이였다.

이제까지는 주로 종이나 원료 명칭등을 다룸에 그쳤으나, 本格的인 製紙現場의 製造工程上 用語나 學術用語 등은 1973년 12월 29일 KSM 7071 펄프·종이용어(Glossary of Terms Used in Pulp and Paper Industry)라는 표제로 KS 規格으로서 公告를 보았고, 그후 1980년 12월 23일에 개정되었는데, 여기에는 427개의 用語가 制定 收錄되었다. 이의 原案作成은 本人이

하였고 84년 8월호부터 「製紙界」가 月刊化됨에 따라 每月마다 조금씩 게재하여 지난 5월호로 8회에 걸쳐 214번까지 게재중에 있다.

이상으로 그간의 용어제정 역사와 本人이 이 같은 論題를 들고나오게 된 緣由를 잠깐 紹介드렸다.

It Is 와 It Should Be, 말과 일

무릇 人文科學的인 범주나 自然科學 및 技術의 범주를 막론하고, 또한 現場기술적이건 본사 사무관리적이건 간에, 우리의 업무는 결국 사물을 파악,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 실천에 옮기는 행위의 반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한다면 “It is”와 “It should be”를 분간하고 不斷히 그 거리를 좁혀가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는 理性을 가진 한 사람의 생각하는 인간으로서

- ① 우리의 現實이 어떠한가? — 實態把握(認識)
- ② 어째야 하겠는가? — 基準設定
- ③ 實態(現實)를 설정된 基準으로 끌어올리는 일

이 우리의 業務機能이 된다 하겠으며 거꾸로 기준을 현실에 끌어 내리는 일은 아닐 것이다.

이제 여기서 해방후 우리의 言語問題가 어떻게 汚染됐느냐 하는 問題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민족의 Identity 와도 직결되는 중대관계라 아니할 수 없다. 韓民族을 韓民族답게 하는 것은 言語와 文字, 즉 한국어라는 말과 한글이라는 글을 쓰고 있는 族羈이라 보아 좋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글은 사람이다”, “글은 그 사람을 나타낸다”는 말을 한다. 그렇다면 “말은 곧 민족이다”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지 않을까? 한민족의 特質은 모두 그 민족이 쓰는 언어속에 녹아들어가 압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人間은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언어를 통해서, 언어의 틀속에서 사물을 생각한다. 그 틀을 넘을 수는 없다. 결국, 思考란 말과 더불어 말과 함께 말로써 시작되는 創造活動 내지는 生命營爲의 現象이라 보아 좋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3) 1971년, 韓國製紙工業聯合會 發行

新約聖書에, “太初에 말이 있었다. 그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말이 곧 하나님이었다. 그말을 통하지 않고 이 세상에 지은바 된 물건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至言中の 至言이라 하겠다.

그럼 말이란 무엇이냐? 말이란 어떻게 해서 形成된 것이냐? 말은 얼에서 나온 것이다. 얼이 오랜 세월을 두고 앙금앉은것, 이것이 곧 말이다. 그럼 얼은 누구의 것이냐? 얼은 나의 사사로인 所有物이라 할 수 없다. 내가 속해있는 민족의 것이요, 내 있기 전부터 있는 것이요 곧 전체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왜정때 우리의 말과 글을 抹殺하려고한 것은 言語抹殺이 곧 한민족의 얼을 말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요, 얼만 뺀 먹으면 곧 얼 빠진 민족, 즉 다시 말하면 그대로 이른바 온순한 皇國臣民이 돼버릴 것임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한다면, 얼빠진 백성이 되지 않으려면 제 말을 잊어버리지 않는 백성이라야 된다는 말이 되겠다. 이렇게 본다면 말의 健在는 곧 정신상태의 건재를 뜻하는 것이 된다.

해방 후의 언어 오염현상

그럼 해방 40년에 우리가 日帝의 桎梏에서 되찾은 말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긴상, 복상은 이젠 사라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技術용어가 일제잔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공업화를 지향하는 산업사회라고 할 때 그 공업용어 내지는 산업용어의 대부분이 日語 또는 訛傳日語로 짝 차있다는 말은 곧 오늘의 중요한 뼈대를 이루는 思想·概念語가 남의 말이나 어릿광대말로 돼있다는 뜻이요, 그 社會는 이미 異民族에게 침식당한 사회나 다름없는 상태가 된 것이라고 본다면 지나친 생각일까?

우리 주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무관심 무의식, 무신경하게 황당무계 한 일제잔재어, 그나마 와전된 말들이 뜻조차 모르고 버젓이 우리말인양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쩌다 집 수리라도 하려고

미장이를 접하면, 그들이 쓰는 “모르탈”에 해당하는 말은 으레히 “사모리”로 돼 있다. 이말은 모태를 일정비율로 섞어수복이 쌓아놓은 것이라는 뜻의 「砂盛り」에서 온 말인데, 아마도 ‘샤모리’가 와전되어 ‘사모리’가 된게 아닌가 추측된다. 가을에 성묘라도 하러 시골에 가면 이것은 “아끼발” 또는 “아끼바리”로 지은 햅쌀밥이니 한번 자셔보라고 농민이 권한다. 이것은 필시 아마 우리나라 맑고 푸른 하늘을 따서 총독부가 지었던 硯品種名 아끼바레(秋晴礼)가 와전된 것인 모양인데 좀 더 지나가면 ‘아기발’까지 되지 않을까 걱정이야. 아기발을 먹다니 그럼 식인종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도회지에서서 기막힌 일을 들어보자, 양복점 조수는 아예 ‘시다’(した)라는 말로 굳어버린 것 같고, 더욱 웃지 못할 일은 요새 伏中처럼 옷을 안해입는 한가한 불경기철을 그들 세계에서는 ‘히마철’이라고 부르고 있다. 히마는 暇의 일어발음이요, 차라리 이 말 만으로 그친다면 일어는 되는 셈인데, 우리 말의 언어감각으로 뭔가 모자란 듯하여 季節이라는 뜻의 ‘철’자를 부쳐서 ‘히마철’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러니 日語頭韓語尾가 된게 아닌가? ‘비철’이라는 멀쩡한 우리말을 두고 말이야. 음식점엘가 보자. 우리는 ‘접시’도 없는 原始 민족이란 말인가? ‘食사라’는 또 어찌된 말인가? 사라(접시)라는 일어에 먹을 食자를 부친 것이다. 접시, 대접, 사발, 주발 하는 좋은 우리말을 놔두고 특별히 食器用 접시를 가져오라고 파잉 친철(?)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韓語頭日語尾의 말이다. 여기에 ‘오봉’ ‘차브동’까지 튀어나오면 입맛이 떨어져 먹을 마음이 없어진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말하였다. “외국어 하나를 정복한다는 것은 곧 그 민족을 정복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 말을 뒤집는다면 異民族語에 의한 제말의 좀먹어 들어감은 곧 그 민족의 쇠잔과 다시머힘을 뜻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펄프·製紙分野에 있어서의 It Is 와 It Should Be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가지를 지적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 첫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외람되지만 우리의 펄프·제지분야 역시 無關心, 無意識, 無心の例外는 아니지 않나 하는 점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금이나 예나 마찬가지로 아닌가 한다. 먼저 말씀드린 '64년때 쓴 글의 서두를 읽어 보기로 하겠다.

“1956년에 우리나라 紙業界에선 「用語制定委員會」가 構成되어 펄프·종이 관계의 爲先 아쉬운 用語들을 統一制定하여, 그 內容을 一般社會에 묻는 意味에서 1957년에 그 試案이 發表된 바가 있는데, 8年間の 歲月이 흐르는 오늘 그 可否에 대한 是非는 姑捨하고 아주 默殺되다 시피 되어 있어 業界人の 한사람으로 지극히 섭섭함과 寂寞感을 느낀다. 그런 問題에 意見이 百出하여 整頓에 진땀을 빼게끔 된다면 얼마나 우리로선 「즐거운 비명」이 될까?”⁴⁾

2. 둘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It should be가 없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기준은 훌륭한 것이 있다. 다만 시렁위에 올려 놓고 쓰지않아 먼지가 앉아있을 뿐이다.

3. 기준이 없어서 쓰고 싶어도 못쓰고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It should be, 즉 기준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이같은 기준을 만드는데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이미 있는, 가급적 순수한 우리말을 발굴 보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엄연히 있는 우리말을 찾아내고 갈고 닦아서 광을 내는 일이다. 여기에는 아마 옛 우리의 공업용어를 발굴해내는 사업도 중요할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1500년 이상의 종이 제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원료를 추수르는데서부터 종이를 묶어 보관하는 데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과 공정에 분명히 토박이 우리 말들이 있었을 것이다.

(2) 서양식 제지술의 영역에서 전혀 우리에게 해당말이 없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최소한 外來語 直譯式的 拙速을 避하고, 먼저 그 자연과학적 내지는 기술공학적 사물의 本體, 本質을 명확히 파악하고나서 거기에 가장 적절 적합한 우

리말을 골라야 한다. 더우기 日語번역일 경우 漢字는 그대로 놔두고 토에 해당하는 이른바 ‘히라가나’, ‘가다가나’만 옮겨 놓는다고 절대 옳은 우리말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이문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3) 가급적 순수한 우리말을 즐겨 써서 우리 몸에 배도록 하자. 말은 즐겨써야 우리 살과 피가 되고 違和感이 없어진다. 써서 익혀야 익숙해진다. 우리말이 어색한 외래어 취급을 받게 된 이유가 여기있다.

필자는 얼마전에 어느 국영기업체의 운전교본을 감수한 일이 있었다. 그 책은 ‘valve를 open하고, close하고, setting하고, 약액을 drain하고, 무엇이 overflow되고, overload되어서, 다시 start up...’하는 식의 글이었다. 밸브를 열고, 닫고, 설정하고, 빼내고, 넘쳐나고, 과부하되어서 다시 재시동...”하는 등 훌륭한 우리 말들이 있는데 천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토”만 우리말로된 국영기업체의 운전교본은 어느 나라의 운전교본이란 말인가? 외래어를 써야만 유식해지는 건 아니다. 다만 무의식 무식코 쓰는 습관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공업의 시급한 과제는 기술축적과 정작, 다시 말하면 기술토착화가 문제인데 진정한 의미에서 이것은 용어(말)의 토착화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시급히 고쳐야 할 말들

구체적으로 잘못된 말들을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다. 말은 굳어버리기 전에 빨리 고쳐야한다. 40년! 사람으로 치면 이제 장년의 나이가 아닌가?

[1] 名詞的인 것

감히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원료와 제품명부터가 잘못돼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은가?

4) 製紙界 제 57호 1964.

① ‘紙’도 우리말인가?

紙라고 써 놓고 우리는 ‘지’라고 읽을 수 밖에 없다. ‘紙·板紙’라니 그럼 우리는 지를 만드는 사람들란 말인가? 이러한 오류는 일인들의 표기법을 무비판적으로 흉내내는데서 온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따지고 보면 흉내도 옮겨낼 게 못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紙·板紙라 써놓고 ‘가미·이따가미’라 읽지 결코 “시·한시”라고는 읽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한자를 읽음에 뜻으로 읽는 방식(訓讀)과 음으로 읽는 방식(音讀)의 두가지를 쓰고 있는데, 이 경우에 뜻으로 읽고 있으며 이로써 실감있게 그뜻이 머리에 공작들어 박히고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음독방식 밖에 없으므로 紙라고 쓰고 ‘지’라고만 읽지 ‘종이’라고는 못 읽는다. 혼선은 여기서 나왔다. 지라고 할때 우리 머리에 있는 수 많은 지가 등장한다. 地, 땅, 손가락指, 알知, 더러워진 手, 거미蜘蛛, 솟돌砥... 등등 그럼 대체 어느 지를 우리는 만든단 말인가? 이렇게 볼때 지는 한낱 추상음이 되어 몇박자가 늦어지는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일본 기술협회를 紙 pulp 技術協會라 번역한다면 잘못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을 シ・パルプ 技術協會로는 읽지 않기 때문이다. 가미빠루뿌 技術協會지. 따라서 마땅히 ‘종이·펄프기술협회’라 번역해야 된다. 이 기회에 덧붙일 것은 그들은 가령 영미제국의 협회명을 번역함에 있어서 原文은 Pulp & Paper Tech. Assn. 하는 식으로 펄프가 먼저 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로 옮길 때에는 ‘紙パルプ...’라고 종이 먼저 나간다. 가미·빠루뿌하는 것이 빠루뿌·가미하는 것보다 혀가 원활하게 돌고 리드미컬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기네 언어관습을 최대로 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단독인 ‘紙’자는 죽은 符號일뿐 절대로 살아있는 시제의 우리말이 아니다. 백상지, 크라프트지, 판지하는 식으로 무엇과 붙어서, 대체로 語尾에 붙어서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꼬리는 올챙이 꼬리 모양으로 언젠가는 떨어져 나갈 날이 올 것이다.

日인들이 펄프공장과 제지공장을 통털어 말할 때는 아까 말한 이유에서 “가미·빠루뿌工場”이나 또는 “가미빠業界”라 부르거나 쓰고 있다. 이때 우리로서는 ‘펄프·제지공장’이 옳다. 그것이 우리의 언어 리듬에 맞으며 또한 ‘제지펄프工場’이나 ‘종이펄프공장’ 하면 우리말의 語感으로는 제지용펄프·즉 Paper Pulp (Rayon Pulp 공장이 아닌)를 만드는 공장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② 펄프의 표기법 문제

이 문제는 이미 말한 71년도 작업에서 제정된 바 있고, 다시 작년에도 「제지제」 월간발행 첫 호인 8월호 제 62, 63 면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요는 혀가 짧아 발음하기 귀찮아서 제 편리한 데로 만들어 쓰고 있는 일본의 국내 제지행정용어를 자유 대한 40년의 우리가 왜 뒤늦게 흉내내 써야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N—BKP, L—BKP 하는 표기 말이다. 그들은 에누—BKP, 에루—BKP 하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Softwood, Hardwood 의 발음이 힘들어서(그들은 실제로 “소후뜨웃도”, “하아도웃도” 이렇게 발음해야 한다.) 독일어인 Nadelholz (침엽수)와 Laubholz (활엽수) [활엽수도 가쓰요오쥬(潤葉樹)라고 한 때 쓰더니 이것도 불편하여 전후에 고토요오쥬(廣葉樹)라고 바꾸었다]의 머리를 따서 BKP에 갖다 부쳐 자기네 內國規約으로 만들어 쓰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獨語頭·英語尾의 괴물인 셈인데, 따라서 이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리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마침내 웃지못할 희극이 벌어졌으니 PPI 誌⁵⁾는 우리의 펄프공장인 동해 펄프(漂白크라프트펄프 400t/d 생산)의 생산현황을 보도함에 있어서 Unbleached KP 와 Low bleached KP 를 만들고 있는 양으로 보도한 것이다. 서방권에 있는 이로서는 이 난해한 수수께끼記號를苦心한 나머지 NBKP 는 UBKP 로 LBKP 는 Low bleached...로 밖엔 判讀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71년에 이미 각각 Sw BKP, HwBKP 등으로 표기하도록 공표된 바 있다.

③ 和紙

일본이 이른바 명치유신 후 개화기에 서양식

5) Pulp & Paper International, 1982, 4월호, p. 27)

제지술을 도입함에 있어서, 우선 비근하게 손댄 것은 손으로 뜨던 전통적인 수륙지(手漉紙), 이른바 그들의 和紙(‘와가미’ 또는 ‘와시’라 부른다)를 가능한 한 기계화하는 일이었다. 이리하여 재래식의 수륙지와 같은 고급지는 도저히 안 되지만 주로 마닐라 麻 등의 유사섬유에 목재펄프를 적당량 섞어서 丸網과 양키드라이어로 얇게 뜬 종이를 이른바 기계로 뜬 和紙라 하여 機械漉和紙라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해방 후 6·25를 거쳐 50年代末까지는 이 말이 발부찰업두도 못내더니 62~63년대부터 어느덧 “화지”라는 이름의 종이가 나돌게 되었다. 일본의 수륙지 공업전통과 이의 기계화 과정에서 태어난 大和族의 공업 내지는 상품명을 왜 해방된 우리가 흉내내야 하느냐는 문제이다. 해방된 조국의 철공장에서 韓國人이 만든 환망초지기를 가지고 미국에서 수입한 목재펄프를 원료로하여 한국사람이 한국에서 떠낸 종이가 어찌서 和紙란 말인가? 기계와 사람과 원료와 제품이 다 다르지 않은가? 이것은 단순히 환망초지기로 15~16 g/m² 대로 얇게 뜬 박엽지일 뿐이다. 티슈중 위생박엽지(Sanitary Tissue)가 아니고 필기용 박엽지(Copy Tissue)에 속하는 종이인 것이다.

④ 물紙

로루紙, 노루紙, 하다가 겨우 물紙로 다소 발음만이 멧을 부리는 것 같으나, 이것 역시 일본 종이시장에서 그들의 개화기에 태어난 종이 俗名에 불과하다. 이 종이는 양키·실린더로 光澤을 낸 片面光澤紙이다. 따라서 서구사회에서는 무조건 M.G.(Machine Glazed)로 통하는 종이이다. MG Sulfite 나 M.G. Wrapping 이니 하는데, 이 片面紙의 光을 잘 내는데는 粘狀叩解 등 몇가지 노우하수가 있다.

광이 날수록 인기가 있었는데 어떤 사정에서인지 평판이 아니라 권취상태의 멧진 光澤紙가 시중에 나왔던 모양이다. 그때 릴로 감은 종이가 통하게 되었고 Roll紙라는 이름이 굳어졌으며, 심지어는 本州제지의 제 4 호기에서 감아 낸 종이가 제일 광택 등 품질에 인기가 있어 ‘혼시로—루’(本四롤)라는 것이 MG 지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된 시대가 있었다. 물紙란 명칭은 이 래서 일본서 굳어진 것이다.

해방 후 그들은 물자난으로 GP를 일부 섞어 쓰게 되어 ‘G 롤’이라고 부르다가 차차 물자난이 해소되어 GP를 안섞은 것도 나기 시작하자 GP 때문에 누리터한 종이에 비해 이번 것은 희다는 뜻에서 純白롤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게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느덧 롤지라 쓰더니 純白으로까지 간략화되어, ‘요샌 어떤 종이를 뜨십니까?’ ‘순백을 뜨고 있지요’하는 식이 되고 말았다. 순백이라면 白上紙야말로 순백일텐데... 이 종이는 片光紙 또는 MG 지가 정답이다.

⑤ 休紙·古紙·化粧紙

며칠 전 TV 뉴스 시간에 화장지를 말하는 데 휴지란 말을 쓰고 있었다. 우리에게 화장지 메이커는 있어도 휴지메이커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찌된 셈일까. 우리는 休紙·古紙·化粧紙 사이에 커다란 사회적인 언어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막대한 외래자본이 들어와서 기술의 정수를 기술인 공장에서 당당히 오로지 한가지 최종목적(衛生용도)을 위해서 떠낸 완제품의 총칭이 이른바 ‘화장지’이다. 그런데 사회 公器인 TV에서 조차 위생과 문화생활의 대명사인 화장지를 休紙라고 부르고 있으니 한심하다 할 수 밖에 없다.

휴지란 본래 ‘헨 종이’(Waste Paper)라는 뜻. 따라서 ‘길가에 떨어진 휴지 줍어라’ ‘휴지통에 버려라’고 한다. 계지학상으로는 일차 사용목적이 끝난것이 모두 休紙다. 이것을 2차 3차까지 轉用해 쓰는 나라일수록 후진국을 뜻 면한다. 화장지를 휴지라 함은 신문이나 잡지를 찢어서 구기꾸기 적당히 볼 일을 보던 자랑할 것 없는 그 시절의 생활 습성의 유물에 불과하다. 즉 휴지(헨종이)를 화장지로 대응했던 시절이다. 이제 그 생활을 청산한 지 오래이고 그야말로 휴지(休紙)는 종이의 1차 사용목적을 다한, 製紙工場 펄퍼에 들어가기前 잠시 쉬고 있는 원료자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화장지가 休紙로 격하되고 휴지는 古紙로 둔갑하여 한 박자씩 빛나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모잡지사의 광고대로 첫번째단추를 잘못끼운 꼴이 아닌가? 잘못 건

단추판 고지(古紙)라는 말의 등장이다. 이것도 앞서 말한 펄프 표기법과 함께 5·16 한일국교 재개후 최근에 물어 들어온 日語이며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다. 또한 이것 역시 그들은 ‘후루가미’(현 종이)라 읽지 이때는 ‘고시’라고는 읽지 않는다. 본래가 그들은 溫故知新을 좋아하여 종이원료인 현종이를 擬人化해서 한번 자기 사명을 다하고 죽었다하여 故人이 됐다는 “故”자를 쓰고 이때는 ‘고시’라고 읽고 있었다. 이것이 약 10년 남짓 전에서부터 故字에서 父를 빼고 古자로 단순화했는데 이것은 중공의 漢字劃 단 순화나 같은 논리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현종이를 古紙라 쓰고 있으니 休紙를 탈잉크 하여 화장지를 쓰는 공업이 古紙로 休紙(현 종이)를 쓰는 공업으로 格下(?)되고 만 셈이다. 그리하여 食卓에 앉아서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休紙(현 종이)를 달라하니 어찌된 셈인가? 그러므로 休紙라는 우리말 대신 古紙가 들어와 관을 치는, 그리하여 현대 제지술의 정화된 화장지(2,500m/분 이상의 최고 生産스피드 紙種이라는 점에서)가 스테이튼을 연상케하는 휴지로 전락한 것을 합리화라도 시켜준 것 같은 言語混亂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항의하고 시정해 나서야 할 사람들은 우리들 제지인이 아닐까? 필자는 70년대 초 당시 內外經濟新聞 보도기사에 이 같은 용어혼란이 보이기에 시정기고를 하였더니 金맛을 실어준 일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제동에 나선다면 호응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⁶⁾

⑥ 中芯紙

이것 역시 순 日本 용어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그들은 訓讀인 ‘나까싱’이라 읽어 추상명사인 ‘주우싱’[中心]과는 명백하게 구별하고 있다. 71년에 본인은 이것을 골진 종이라는데 역걸을 두어 골진紙라고 提案, 確定되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뜻으로는 땀땀하게 받쳐주는 그야말로 骨芯이지만 읽기는 ‘고울芯’이라고 발음해야 제격이다.⁷⁾

[2] 現場用語

현장 조업상에 많이 쓰는 용어 중 몇 가지만 들어보겠다.

① 地合: Formation 을 어떻게 번역할 까하는 문제다. 거의 예외없이 日語인 地合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지합→지압으로까지 와전되었다. 기왕에 訛傳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두 가지 이야기 하겠다. 어느 현장엘 가니, 대학출신인데 ‘자스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었다. 내가 혹시 잘 못 들은 것 아닌가 하여 귀를 의심하였으나 연거푸 역시 ‘자스통’이다. Chest 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와전 중에는 또 이런 웃지 못할 희극도 있다. 日人들은 어찌된 셈인지 우리나라로부터의 製紙術의 전래를 그들의 책마다 예외 없이 高麗時代로 誤記하고 있다. AD 610 년이면 연대상으로 分明히 高句麗時代인데, 우리역사에 무식하다 할까 남의 역사에 등한하다 할까 아니면 의식적인 왜곡근성의 발로라 할까 하여 간 그들의 책에는 모두 고구려가 고려로 둔갑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誤記를 誤記인줄도 모르고 그대로 踏襲하여 우리사람이 쓴 우리 책에도 스스로 年代를 격하하여 고려시대에 嚮徵이 일본에 제지술을 전할걸로 쓰고 있는 책까지 있는 걸이다.

도대체 종이를 논함에 있어서 Formation 이란 무엇이나? “Papermaking is an art—not a science. But today it involves both.”⁸⁾라는 말이 있듯이 “종이뜨기”란 그야말로 말로는 다포현 할 수 없는 직감적 판단의 세계다. 더군만다가 종이의 Sample 을 떠서 광선에 비추어 드러다불때의 그 玄妙한 느낌과 판단,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formation 이요 또한 抄紙技術의 本領이라 하겠다. 우리는 이것을 紙匹形成의 程度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고 표현하는 말이라는 뜻에서 紙匹度라고 造語한지 오래이고 KS 에서도 콩고 된 바 있다.

이 말을 지어내기엔 이미 50年代末 工研製

6) 공업진흥청, 기술지도 제 80·79, p.50~52 참조

7) 골板紙包裝, 1972, 제 9권, 제 1호 참조

8) W.B. Wheelwright, Practical Paper Technology, 1955, p.5.

紙研究室에서 었으며, 이야말로 사물의 본질을 먼저 알고, 그에 맞는 우리말을 찾아내는 작업의 본보기였던 것이다. Formation 을 ‘지필도’라고 하는데에는 또 한가지 이유가 있었다. 종이뜨기가 匠人들의 玄妙한 예술경지의 세계이긴 하나, Art 부분이 점차로 Science 부분에 밀려 모든 신비가 벗겨지고 解析, 計量化되어가는 과정이 오늘의 펄프·製紙工學임을 看過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當時 스웨덴에는 Formation Tester 라는 것이 이미 선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렇게 볼때는 지필형성의 玄妙한 세계가 제수적으로 표현 파악되는 날도 반드시 올 것이어서 그때 가면 紙匹度란 말은 더욱 체계인 말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한 7~8년 전엔가 공업표준심의회의 발대임명식이 工研강당에서 있었는데, 그때 마침 내 앞자리에 한글학자 韓甲洙씨가 앉아 있었다. 우연히 얼굴이 마주쳐서 칼을 건넌 기회에 Formation 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고 적절한 우리말의 의견을 물으니 ‘퍼짐새’가 어떻겠느냐는 대답이었다. 괜찮은 말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퍼짐새가 좋다. 나쁘다’ 하는 식으로 쓰면 얼마나 좋을까? 이 기회에 덧붙여 말할 것은 영어세계에서는 서방의 製紙術이 넘마로 두꺼운 종이를 뜨는 것으로 출발해서 그런지 지필도가 좋다는 말을 ‘잘 엉겼다. —‘well closed’라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wild’ 또는 ‘cloudy’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엉김새’라고나 할까, 우리는 퍼짐새로 보는데 저들은 엉김새로 본다는 건 언어감각이 우리와 얼마나 正反對임을 보여주는 實例로 흥미있는 東西洋의 對照로 느꼈다.

② Retention

이것을 保留劑라 번역함은 그야말로 本質把握→採語의 원칙에서도 벗어나거니와 拙速과 不合理的을 露呈하는 말이다. 日인들이 ‘步留リ’라고 번역하였는데, ‘부도마리’는 문자 그대로 日語로 收率이란 말이요, ‘Retenion Aid’ 할때의 步留向上劑는 곧 Wire上 수율증진제를 의미하고 있다. 그들이 쓰는 步(ブ)란 곧 日歩計算등, 어떤 ‘比率’을 뜻하는 말로서 收率과 步留리는 同義語이다.

保留란 말은 收率 乃至는 比率의 뜻이 전혀들

어있지 않을 뿐더러 무엇을 保留 또는 留保한다란 임시조치 영겨추출을 뜻하는 우리말로써, 그야말로 retention aid 를 쓰는 목적(本質)과도 어긋난다. 가령 Filler 나 잔섬유가 종이에 임시로 붙어있다면 언젠가는 떨어져 나간다는 뜻밖엔 되지 않으니 그야말로 인쇄 트러블의 원흉인 紙粉이나 Picking 등의 원인이 되어 전량 칼레임이 걸리는 종이가 되고 말 것이다. Retention Aid 는 견고하게 흡착력이 좋아 수율도 높고 튼튼하게 정착시키자는 목적의 약품이 아닌가?

그러므로 Retention Aid 는 본질상 와이어 노 수율증진제(또는 향상제)요, retention 이란 學術語를 굳이 우리말로 옮기고 싶다면 차라리 留存劑라 함이 훨씬 적절하다(‘retention이 좋다’—‘留存성이 좋다’하는 식으로). 무릇 용어란 현장에서 본질을 파악 숙지하고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번개같이 어느 때 민중의 말로 튀어나올 때 진짜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拙速은 禁物이다.

③ 粕이라는 말

언젠가 어느 공장에서 생산보고가 올라 왔는데 드라이어에 까스가 차서 몇십분간 생산중단으로 減産됐다는 단서가 붙어있었다. 내게는 즉각 집히는 바가 있었으나 모른 체하고 무슨 뜻인지 현장에 전화를 걸어보라 지시하였다. 그랬더니 공장의 기록자 자신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우물대었다. 까스가 찼다니, 무슨 유독가스라도 새어 나와서 사람이 접근 못해 사고가 났다는 뜻인가? 결국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처음에 예상한대로 日語의 ‘粕’字가 원흉이었다. 粕字를 日語로 ‘카스’라 읽는데 ‘찌꺼기’란 뜻이다. 이것이 어떤 공장에서는 ‘깨스’라, ‘가스’라, ‘까스’라 제각기 적당히 와전되고 있다. 결국 독타 不實, 사이징 不良, 毛布관리 不良等 原因으로 양키드라이어 면에 때가 끼어서 할 수 없이 그것을 끊어내리라 머신을 20여분간 세웠다는 것이 진상이다. ‘드라이어에 때가 끼어...’ ‘하면 될 것을 역시 日語답습에서 오는 우스개 일이었다.

맺는 말

용어문제는 너무도 때늦은 감이 있으나 굳어

버리기 전에 빨리 是正 定着시켜야겠다. 그러는 데는 우리가 다 같이 의식적으로 즐겨 써 모범을 보이고 애써서 공원들을 가르칠 수 박연 없다.

또한 번역은 양측 문화권의 역사적 虛虛實實을 충분히 아는 사람이라야 가능하며 '직역'이야말로 최대의 禁忌事項임을 강조해 두고 싶다. 언젠가 어떤 잡지광고에 「경영의 하나님 松下幸之助」라는 題目이 나와 있었다. '經營の神様云云'을 그대로 직역한 모양인 데 참 뜻은 경영의 '귀신' 또는 경영의 '도사'라고 해야 했을 것이다. 八百萬神이 있다는 그들의 文化圈에서는 아무테나 하나님을 갖다붙이나 한국인의 생활감각으로는 도사 맞지않는 말이다. 사전을 보고 단어를 옮겨놓는 식의 직역 번역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 강연을 마침에 있어서 아까 읽었던 글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책임을 다할까 한다. 지금까지 많은 有識한(?) 말을 한 것 같지만 「떡보루」라는 말이야말로 本人의 생각으로는 解放後 우리 製紙業界의 最大 創意的 結작이요 그야말로 무궁한 기업 창의성과 生命力을 상징하는 말로 받아 들였던 것이다. 과연 그 예언

은 20餘年後 오늘에 와서 저중된 셈이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어있다. 「「떡보루」— 이 名命은 解放 20年の 紙業界가 나온 하나의 傑作이라고 生覺한다. 筆者는 이 工業을 오래 勸奨할 生覺은 없다. 그러나 이 分野가 紙器業界에 적지 않은 貢獻을 하여 왔고 값 싸다고 하는 것이 最大魅力으로 爲先 그런대로 耐乏生活에 「어필」하여 顧客을 끌고 있음을 볼때 그 企業的 創意性이 좋지 않은가? 그리고 이 創意力이 마침내 國內 最初の 마닐라 板紙工場으로 變身된 것을 생각할 때 「떡보루」라는 名稱自體가 潑刺한 企業的 生命力을 象徵하는 것 같아서 좋다. 이것을 「天日乾燥式板紙」라고 구구스럽게 늘어 놓아야 有識하달 法은 없다. 「떡보루」— 訛傳치고는 참 傑作級에 드는 좋은 「우리말」이다.」⁹⁾

本人은 일제 식민지교육을 받은 불행한 중간世代之 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오늘 이런 말쑥을 드림은 그 不幸했던 억울한 代價의 일부라도 받아내고자 함이다. 그 대가를 받아내는 길은 조국의 젊은 世代 여러분이 저들을 알고 우리 자신을 옮겨 알아 우리 말을 즐겨 쓰고 많이 만들어 내어 民族公業으로 착실하게 정착시켜 주는 일이라 믿는다. (이상).

9) 同上 製紙 제57호, 1964.